



# 성과 목표 낮춘 교육청... 관리도 부실

### 목표달성도 81%... 일부 지표 목표치 하향 설정 도의회 예결위, 성과지표 객관성 문제 등도 제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미흡한 성과관리가 도마위에 올랐다. 일부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하향 설정하거나 소극적으로 목표치를 상향 설정해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 적정한 성과지표와 합리적인 목표치 재설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2018회계연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도교육청의 성과지표 목표달성도는 81.25% (8개 중 65개 목표 달성)다. 이 중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30% 이상 초과

달성된 성과지표 수는 6개, 100% 이상 130% 미만은 59개였다. 100% 미만은 15개였다.

하지만 이 가운데 자율학교 운영 관련 만족도,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참여율, 학원관계자 교습자 연수 이수율 등 일부 성과지표는 목표치가 전년도보다 하향 설정돼 목표가 달성됐다. 또 일부는 2016년과 2017년 실적보다 소극적으로 목표치가 상향 설정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성과보고서는 실적 산정의 구체적 근거를 명시하는 등 목표 달성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 객관성·신뢰성을 제

고해야 하지만 성과지표 80개 중 67개는 객관적인 실적자료 없이 실적에 대한 결과 값만 제시해 성과분석이 이뤄졌다.

관련해 19일 속개한 제373회 제주도의회 제1차 경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임상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은 성과지표·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 도교육청의 관심 및 인식 부족과 안일함을 지적했다. 더불어 향후 지속적인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성과지표 고도화 작업을 충실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이경희 부교육감은 "컨설팅을 통해 계속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자유한국당 빠진 사개특위 19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위 전체회의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 좌석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

# 제주시설공단 설립, 정부 승인 받나

### 어제 행안부 사전심의서 위원들 필요성 공감 조건부 승인 무게... 내년 초 가동 가능성 높여

정부가 제주시설공단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빠르면 내년 가동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정부합동청사 회의실에서 제주시설공단 설립에 대한 행정안전부 사전설립심의위원회 심사가 진행됐다.

이날 행안부 사전심의위원들은 제주시설공단 설립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조건부 승인' 결정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30여분간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며 "내일(20일)쯤 심의 결과를 문서 형식으로 제주도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설립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였다"면서 "다만 공단 정원과 수지분석 방법 등에 대한 질문이 많은 것으로 미뤄 부대 의견이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행안부의 사전심의를 통과할 경우 제주시설공단설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쯤 시설공단 조례를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뒤이어 오는 10월 임원 임명·등기

를 거쳐 2020년 상반기쯤 공단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가 지방공기업평가단에 의뢰한 시설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에 따르면 제주시설공단 적합시설로 자동차공업버스(107대)와 하수도시설, 주차시설(36곳), 환경시설 등 5곳이 제시됐다.

조직·인력은 1이사장 3본부 1실 15팀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은 총 1105명으로 정원 902명과 정원 외 203명으로 구분됐다.

지방재정 절감액은 앞으로 5년간 111억6900만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앞으로 제주도는 시설공단 설립 관련 공무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며 도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 제주산 돈육 필리핀 수출에 제주대 연구팀 등 사전 노력

제주산 돈육을 필리핀에 수출할 길이 열릴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대학교 동물생명공학전공 류연철 교수 연구팀은 19일 '이달 25일부터 27일까지 필리핀 앙헬레스시 돈육수출입 담당자를 초청해 제주돈육 수출을 위한 시설 현장 실사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질병 등으로 인해 필리핀에 가공육산물을 제외한 원육 수출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제주대 류연철 교수 연구팀과 (주)하르방축산시스템(대표 고도호)은 그동안 필리핀 정부에 원육 수출을 위한 협조 요청을 꾸준히 해 왔다.

류연철 교수 연구팀은 지난해 6월 필리핀을 찾아 유통시스템을 살펴보고 방문 직후 제주도내 수출육가공 협의회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출

설명회를 열었다. 특히 올해 5월에는 카메로 라자틴 앙헬레스 시장과 일대일 면담을 통해 제주산 돈육의 우수성과 질병 안전성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에 내도하는 필리핀 실사단은 앙헬레스시 공무원, 면세점 이사장, 육가공 관계자, 의사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제주도내 도축시설, 육가공장 등을 돌아보고 고화범 제주시장과 면담을 통해 제주산 돈육 수출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전선희기자

## 2019 제주 헤리티지 과학상 수상자 지원 공고

이니스프리 모음재단은 1970년대부터 이어온 아모레퍼시픽 그룹의 창업주 장원 서성한 선대 회장의 제주사랑 정신을 계승하여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자연과학 분야에서 제주의 소중한 유산(헤리티지)을 지키고 드높인 과학자를 발굴 선정하여 포상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공고일 기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자연과학(이공계열, 의학 보건계열포함) 분야에서 연구 및 기술개발 관련 현직에 종사하고 계신분

**선발인원** 1인

**수상혜택** 상패 및 상금 5,000,000원

**지원방법** 추천 또는 응모

**제출서류** 수상 후보자 지원서, 지원자 프로필\* (대표 실적 또는 특허에 대한 초록 (제목, 출처, 연도 등))

\*1 이니스프리 모음재단 홈페이지 www.innisfreemuseum.or.kr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서류접수** 이니스프리 모음재단 e-mail 제출 imuseum@innisfree.com

**접수마감** 2019년 8월 16일 (금)

**발표** 2019년 9월 중, 수상자 개별 연락

**문의** 이니스프리 모음재단 사무국 064-749-9917

이니스프리 모음재단

## 2019년도 제주관광학회 춘계학술세미나

○ 주제 : 1,500만 관광시대, 제주관광 환경변화에 따른 미래 전략  
○ 일시 : 2019년 6월 25일 (화) 13:30 ~ 18:00  
○ 장소 : 서사라 아스타 호텔  
○ 주관 : (사) 제주관광학회  
○ 후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관광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시 간	식 순
13:00-13:30	등 록
	개 회(진행: 송 상 섭 제주관광학회 총무이사)
13:30-13:50	내빈소개 · 개회사 시 양 근 제주관광협회장 · 축 사 원 회 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축 사 김 태 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 축 사 박 용 배 제주관광공사 사장
13:50-14:20	기 조 강 연 · 주 제 : 1,500만 관광시대, 제주관광의 미래 전략 · 송 재 호-국가균형발전위원장
14:20-14:30	Coffee Break
14:30-14:50	1부 발 표 · 발표1 신 동 일 박사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오버투어리즘 시대와 제주관광의 질적성장관리-
14:50-15:10	발표2 강 은 정 박사 (제주국제대학교) -개발관광에 맞춘 제주음식관광 활성화방안-
	토 록
15:20-15:50	· 좌 장 고 승 이 박사 - 전 제주관광협회장 · 토론자1 전 대 식 전 대표 - ICN Korea · 토론자2 고 미 영 박사 - 제주연구원 · 토론자3 고 광 호 산학협력과 교수 - 제주대학교 LINC사업단 · 토론자4 고 선 영 센터장 - 제주관광공사
15:50-16:10	Coffee Break
16:10-17:00	2부 특 별 세션-여행작가페널토론 -제주도립 관광 발전전략-
17:10-18:00	· 좌 장 서 용 건 교수 - 제주대학교 · 패널1 신 동 일 박사 - 제주자동차여행 코스북 '저자 · 패널2 오 선 영 박사 - 나는 유럽에서 관광 편다' 저자 · 패널3 우 연 철 박사 - 건국대 평생교육원 여행작가 과정 주임교수 · 패널4 정 은 정 주 - 제주기자' 저자
	3부 특 별 세션-관광사업자페널토론 -개발 관광 시대의 제주 관광사업 재구조화 방안-
17:10-18:00	· 좌 장 고 현 환 교수 - 제주국제대학교 · 패널1 문 조 현 주사연구실장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패널2 김 인 영 박사 - 김녕미로공회대표 · 패널3 문 영희 대표 - 문동미세프의 농차고을 · 패널4 홍 우 식 대표 - 제주해나투어 · 패널5 송 우 석 부사장 - 제주신화월드
18:00~	교류 및 만찬

社団法人 濟州觀光學會 회장 신왕근

## 한라일보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 제주의 자연은 제주인의 삶의 터전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인간다운 세상과 아름다운 환경을 가꾸기 위해 저희 한돈농가는 제주도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한돈농가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제주인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저희 한돈농가는 청정이미지 보전으로 늘 푸른 제주환경을 생각하며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단 법인 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